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4년도 제21호

**故 정우림 선수를 추모하며**

**신화 창조에 축구에 종지부를 찍어라**

이주욱 충남대학교 교수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센터백·플백·수비형 미드필더 등 소화자신...운동공부 병행**

**학교는 예일대, 전공은 신경과학...U-20 여자 축구대표 된 장서윤**

이의진 연합뉴스 기자

**서로 존중하는 스포츠 환경 만들기**

**서울시농구협회-플뿌리스포츠, 올바른 농구 문화 만들기 위해 손잡았다**

서호민 점프볼 기자

**[강호철의 스포츠라이트]**

**비행거리 100만마일... 가장 부지런한 IOC위원 되고 싶었다**

강호철 조선일보 기자

**[중부일보 삼리만상]**

**체육영재고 신설 철회해야**

전영관 학교체육진흥원 이사장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신화 창조에 축구에 종지부를 찍어라. 故 정우림 선수를 추모하며



이주욱

충남대학교 교수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2024년 4월, 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 끝에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1988년 서울 대회부터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기록은 멈추었다.

여론은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의 문제를 연일 질타했고, 언론은 특정 선수 간 일탈의 문제를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델 에스테로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에 대한 언론 보도가 넘쳐나기도 했다. 이 대회에서 4강 진출이 큰 의미를 가진 것은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대한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U20 대회에서는 이승우, 이강인 같은 스타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 대회에는 두드러지는 선수가 없었다. 무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2회 연속 4강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낱알의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한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접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축구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의 문제를 재설계하고, 지향하는 철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선수 시절부터 인권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고 넓은 안목의 '교육적 관점'이 필요하다.

2022년 4월, 김포 FC 유소년 축구 U18 팀 소속이었던 정우림 선수가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된 사건에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

2023년 5월 11일 정 선수의 아버지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심문에서 "축구계의 인권 침해 ·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어린 학생들이 자기를 돌봐줄 어른이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어린 학생선수가 아주 익숙했던 호흡을 멈춘 단순 사건이 아니다. 학생선수의 인권과 훈련 환경을 혁신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조용환 교수는 '교육'이 비록 막연하고 고단할지라도 매번 '이것은 교육인가' 문답하고, '교육다운가'에 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우림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학생선수들의 훈련과정이 교육다운가라는 질문을 하고 또 해야 한다. 그리고 답하고 또 답해야 한다. 특정 개인이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고민하고 통렬하게 반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는 믿기 어려운 신화를 창조하는 결과보다 학생선수들의 안전과 교육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생선수의 교육적 성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체육계는 학생선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간과하고 감추기에 급급함이 여전히 남아있다. 학생선수들이 어렵게 내밀었던 손을 놓치고, 안전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승리라는 결과만을 위해 적합한 과정을 무시했다면, 이제는 학생선수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인권 친화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쿠르트 레빈(Kurt Lewin)은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헤어짐은 그 관계를 옹호하건 경멸하건 의지대로 관철되기 힘들다.

이제 체육계는 물러섬 없이 억압과 반인권을 묵인했던 기존의 방식에 과감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를 볼 수 없을지라도, 이는 혁신을 위한 성장의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메달과 결과 중심의 과거를 버리고 교육과 인권이 중심이 되는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故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빈다.

# 학교는 예일대, 전공은 신경과학... U-20 여자 축구대표 된 장서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이 우리나라 축구계에 깜짝 등장했다. 미국 예일대에 재학 중인 2004년생 장서윤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근처의 프리스코에 사는 장서윤은 두 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고, 쭉 거기서 성장했다. 7세 때부터 오빠를 따라 축구를 시작했다는 장서윤은 FC 댈러스 산하 클럽팀, 론스타고등학교 축구부에서 활약하다가 지난해 9월 예일대에 입학했다. 지금은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아이비리그 콘퍼런스에서 경쟁하는 예일대 운동부 '예일 불독스'의 일원이다. 학업과 운동부 생활을 병행한 그는 이번 봄학기를 끝내는 마지막 시험을 막 치른 후 평평 올었다고 한다. 기다리던 기쁜 소식을 받아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강원 태백에서 진행된 20세 이하(U-20) 여자대표팀 소집 훈련에 장서윤을 호출했다. 장서윤의 아버지 장진익 씨가 딸의 플레이를 모은 영상을 협회에 보냈고, 이를 검토한 박윤정 U-20 여자대표팀 감독이 실제 실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 소집한 것이다. 급하게 학기를 마무리하고 항공편을 찾은 장서윤은 이번 소집 훈련을 통해 눈도장을 찍는 데 성공했다. 박윤정호의 미국 전지훈련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박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25일 출국,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국 U-20 대표팀과 두 차례 친선전을 펼친다. 9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에 대비한 실전 훈련이다. 172cm 신장으로 센터백,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를 비롯해 후방 전 지역에서 뛸 수 있다고 자신한 장서윤이 성장을 거듭한다면 우리나라 여자축구에 큰 힘이 될 터다. 김혜리, 임선주(이상 현대제철), 심서연(수원FC) 등 국가대표팀의 주축 수비진이 모두 30대 중반인 상황에서 젊은 수비수의 등장은 반갑다.

지난 23일 수원의 광고중앙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장서윤 역시 "한국 국가대표로 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장서윤이 이번 U-20 대표팀 승선을 특히 반기는 건 선수로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와중에 나타난 낭보여서다. 장서윤은 1년 반 전 경기를 뛰던 중 무릎을 크게 다쳤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고, 반월판도 다쳤다. 재활에 매진하다가 최근야야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게 된 장서윤은 의욕이 넘친다. 몸 상태를 더욱 끌어올리고 싶고, 대표팀에서든 소속팀에서든 경쟁을 이어가고 싶다고 한다.

장서윤이 예일대의 선택을 받은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한다. NCAA 소속 팀들끼리 신입 선수 모집 경쟁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 몇 년 전부터 관계자들이 전국을 돌며 선수 설득에 나선다. 장서윤은 "다른 학교도 가봤고, 여러 감독님과 이야기해봤는데 (예일대) 코칭스태프와 감독님이 좋았다"며 "실제로 가보니 학교 시설도 좋았고 교정도 예뻐서 예일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부와 운동 가운데 한쪽을 경시하지 않는 교풍이 마음에 들었다고 돌아봤다. 실제로 장서윤은 고등학교 때 선수로 생활하면서 공부를 놓지 않았다.

오전 7시쯤부터 학교 축구부의 아침 훈련을 소화하고 수업을 들은 뒤 오후 4시쯤 학교를 마치면 클럽팀 훈련에 참여했다. 장서윤은 오후 10시쯤 귀가해서 학교 과제나 시험공부를 끝마치고 늦은 밤 잠드는 생활이 일상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의 수재들이 모인 예일대에서 '공부 압박'이 더 심하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남들에게 지기 싫다는 이유로 선수 생활 중에도 공부에 집중한 그는 예일대에서 첫 두 학기 중 경제 과목에서 B학점을 받았다고 아쉬워했다. 나머지 수업에서는 A학점을 사수했다고 한다. 신경과학을 전공으로 삼은 장서윤은 "지금은 그 분야에 관심이 간다. 축구가 1순위지만 언제까지 축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틈을 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라면 기량 발전을 위해 공부보다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장서윤은 "본인 결정인데, 시간을 잘 쓰면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는 언제 다쳐서 경력이 끊길지 모른다. 여자축구선수는 고질적인 무릎 부상 문제로 경력이 더 일찍 끝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과 스포츠 환경을 비교한 장서윤은 한국에서도 더 많은 여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을 즐기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단순히 축구가 좋아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는 장서윤은 "이건 미국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을 그냥 행복하게 살자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여학생들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각자 하나뿐인 인생을 잘 즐겼으면 한다"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장배] 서울시농구협회-폴부리스포츠, 올바른 농구 문화 만들기 위해 손잡았다

서울시농구협회와 폴부리스포츠인권교육연구소(이하 '폴부리스포츠')가 손을 잡고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농구협회는 “올해 초, 폴부리스포츠인권연구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알렸다.

협약 주요 내용은 스포츠 분야 및 학교 안 밖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괴롭힘 및 집단 따돌림에 대한 연구와 상담 및 교육 등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인권 친화적 운동부 환경 조성 및 서로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구축하기위한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농구협회 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력은 학교 폭력 등 각종 비윤리적 행위들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홍보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협약을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서, 농구선수, 지도자 등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들의 위상과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업무 협약을 맺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전선영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폴부리스포츠는 지난 2021년 설립되어 스포츠 분야 및 학교 안 밖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괴롭힘 및 집단 따돌림에 대한 연구와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프로농구 창원 LG에서 활약 중인 박정현이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전선영 대표는 여자농구 명문 선일초-선일여중-선일여고를 졸업한 선수 출신으로 1997년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에 발탁되기도 했다.

은퇴 이후에는 고려대 체육학 박사 과정을 밟아 현재는 스포츠인권교육 및 상담사로 변신,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스포츠 인권 보호 및 학교스포츠 관련 폭력 근절에 힘쓰고 있다. 핸드볼, 필드하키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농구 종목에선 현재 연가초, 배재중, 강원사대부고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다.

전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제45회 서울특별시장배 남녀농구대회 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 대표 선발전이 치러지고 있는 잠실학생체육관을 누비며 선수, 지도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폴부리스포츠 전선영 대표는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되니 선수로 활동하던 때가 생각나고 고향에 온 느낌이다. 후배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며 “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권의 의미를 파악하고, 서로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상호 존중하는 농구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서울시농구협회에 감사함을 전한다. 이번 협약은 특히 엘리트농구 쪽에서 스포츠인권, 윤리가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기존인권 경영 체계 구축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인권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호철의 스포츠라이트] 비행거리 100만마일 ... 가장 부지런한 IOC위원 되고 싶었다

대한민국엔 지금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3명 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유승민(42) 대한탁구협회장과 KOC(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김재열(56) 국제빙상연맹(ISU) 회장이다. 이 중 유승민 회장은 7월 말 개막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8년 임기를 마친다. 그는 8년 전 선수 위원에 입후보했을 때 67만 보, 500km 가까이 걸으면서 선거 운동을 했다.

“8년이 훌쩍 지나갔다. 일 년 절반을 해외에서 보내면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비행기만 100만 마일 가까이 탔다. 언어가 잘 안 통하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회의 갈 때마다 자료 준비 많이 하고, 무조건 하나 이상 질문하려고 했다. IOC 사람들이 ‘부끄럼 많이 타는 한국인과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

-직접 IOC 들어가 보니 뭐가 달랐나.

“IOC 위원은 명예직이고 일이 많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정반대였다. 나이, 성별 관계없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 더구나 스포츠만 아니라 환경, 인권 등 다양한 관련 분야를 다 다룬다.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생각이 들었다. IOC 내 위원회가 30개 정도 있는데 현재 7개 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나.

“IOC 내에선 선수들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제약을 많이 완화시켰다. 국내에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악성 댓글 문제점에 대한 정치권 역할을 강조했다. (국내) 포털에 (스포츠 기사) 댓글을 못 남기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국내 선수들 삶이 오로지 경기력 향상에만 맞춰 있다 보니 기본 교육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게 경쟁력이 없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IOC 조직 내에서는 아무도 수학 몇 점 받고 몇 등 했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묻지 않는다. 거기서 ‘너만의 차별화된 경험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외교관, 행정가로 활동하려면 자기 커리어를 극대화하는 게 첫 번째다.”

-선수들 사건·사고 원인이 운동지상주의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 외국이나 모두 올림픽 메달에 인생을 건다. 그 목표를 위해 강훈련하는 것과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가 다른가. 국내 교육 체계가 학생 선수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문제라 생각한다. 학생이란 틀에 가둬 놓고, 운동 선수가 다른 분야에 적응 못 할 것이라는 프레임을 미리 씌워버린다. 학생이라 방학 주말에만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게 정답인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인권에도 어긋난다. 스포츠도 교육이다. 다양한 룰 속에서도 페어 플레이를 펼치고 승자와 패자가 우정을 나눈다. 스포츠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는 게 수업보다 나올 수 있다.”

다음 장 계속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스포츠는 생리학, 심리학 등 학문 분야부터 스포츠 캐스터나 아나운서, 에이전트 등 산업 관련까지 응용 분야가 다양하다.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학습을 받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 요즘 세대들은 전과 달리 메달에만 얽매이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감 넘치고, 자기표현도 잘한다. 선택권을 주면 기본 교육은 알아서 더 열심히 받을 것이고, 다양한 분야와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것이다.”

-파리 올림픽 전망이 비관적이다.

“전통적 강세 종목이 추락하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성장했다. 이런 다양성은 긍정적이다. 진짜 큰 문제는 운동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탁구만 해도 초·중·고·대학과 실업 합쳐 등록 선수가 1300명 조금 넘는다. 엘리트(체육문화)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 스타 플레이어 한두 명에 해당 종목 희비가 엇갈려선 곤란하다.”

-유소년 클럽 활성화가 대안인가.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스포츠 클럽은 취미나 건강 증진 수준에 그친다. 클럽 활동을 통해 뛰어난 자질을 보인 꿈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엘리트(선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을 따라만 하지 말고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 활동이 대학 입시, 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제주도 국제 학교만 해도 사설 스포츠 클럽이 딱 차서 대기자가 100~200명이나 된다. 외국 대학에서 스포츠 활동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골프 스타 박인비 선수가 선수위원에 도전하는데.

“나 때만 해도 선수위원 하려는 사람 드물었는데 올해는 국내 도전자가 6명이나 됐다. 나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 뿌듯했다. 박인비 선수위원 후보와는 몇 번 만났는데 열정과 능력 모두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발로 뛰어라’는 하나뿐이었다. 8년 전 선수위원 도전했을 때 정말 막막했다. 외면, 무시도 당하고, 항의도 많이 받았다. 좌절감이 상당했다. 처음엔 내가 여기 왜 왔지, 진짜로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올림픽 기간 중 67만 보 정도 걸었다. 하루 3만5000보 찍힌 적도 있다. 걸은 거리도 500km 가까이 됐다. 그때 그 선거 후 지금까지도 길거리 걷다가 전단 나눠주면 다 받는다. 누군가 내 입장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었다.”

-운동선수로서, 행정가로서 이를 건 거의 다 이뤘는데 앞으로 꿈이 있다면.

“가까운 앞날이든 먼 미래든 한국 스포츠를 위해 내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내게 기회가 안 왔어’라고 투덜대는 사람은 그만큼 준비를 안 한 것일 뿐이라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나는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열정과 에너지는 그 누구에게도 안 뒤질 자신이 있다. 나름대로 목표도 세워뒀다. 개인적인 영달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일꾼으로서 한국 스포츠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 [삼라만상] 체육영재고 신설 철회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국장은 지난 4월 국립체육영재고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다방면 발전을 위한 정책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로 신설 또는 16개 체육고에 지정을 2025년에 실행한다고 합니다.

체육은 영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체육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듣기 좋은 영재라는 단어로 체육을 현혹하면 안됩니다. 체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발전과 신유빈 선수와 같은 안타까운 선택이 영재고 신설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신유빈 선수의 경우 경기도 소재에 남자 탁구 중학교에 여자 탁구부를 신설해 진학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관리자(교장)가 남·여가 함께 운동하는 환경에 사고(?)우려가 있다며 창단을 반대했습니다. 영재고와 신유빈 선수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어릴 적 잠시 뛰어나 보이던 기량으로 영재를 운운하는 건 그 아이에 대해 인권존중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7, 8세 아이가 탁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국가대표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포츠 유망주를 메이저리그, LPGA, 유럽 축구리그에서 방송과 언론을 통해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영재 소리를 들었던 그 모든 유망주가 모두 제2의 박찬호, 손흥민, 박세리가 됐나요? 영재소리를 들었던 그 아이들의 피나는 노력과 상처받은 제2의 삶은 걱정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 모든 일들이 체육에 대한, 학생선수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져오는 참담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영재고 신설은 운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당한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체육발전의 본질을 너무 쉬게 고민하지 말며 체육 본연의 역할과 현실에 필요한 고민을 교육부·기재부·문체부·과기부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서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체육은 모든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주요 교과와 예능 교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초등 1, 2학년 체육교과 분리와 신설에 이리도 고마워 해야 하는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행이고 고마운 건 현실입니다. 체육은 조기교육이 가장 필요한 교육분야 입니다. 하지만 체육영재란 말은 현실적인 체육생태계에는 부적절한 불필요한 어휘 선택입니다. 체육영재고의 신설보다 유·초·중·고의 체육환경 개선으로 체육인·비체육인을 떠나 모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 육성이 우선입니다. 체육을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환경이 만들어 지고 시간이 지나면 영재보다 더 영재스런 다양한 체육인재가 육성될 것입니다.

전국에 3만3천여 명의 고교생을 위한 체육고는 17개 시·군에 16개교 4천여 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재 선발과 육성을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시·도에 최소 한1곳 이상의(도·광역시 4곳 이상)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일반고에 체육 중점반과 특성화고에 체육 계열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3안으로는 스포츠 대안학교도 가능합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별 특성화 종목 육성으로 스포츠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재라는 귀에 솔깃한 어설픈 눈가림으로 체육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하는 정책은 당장 멈추고 현실적인 대안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목포시 소식] 제53회 전국소년체전 25일 목포서 개막, 나흘간의 열전 돌입 外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151>

장애인체육회, 은퇴 선수 진로 역량 교육 시행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114600007?input=1195m>

금천구-군부대, 체육관-테니스장 상호개방 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7035400004?input=1195m>

과천시,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2026년 완공 목표

<https://www.news1.kr/articles/5427137>

인천 남동구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 본격 활동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27504610?OutUrl=naver>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및 예방 협력 감사패 수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75704i>

'활기찬 학교체육' 전남교육청, 기지개 프로젝트 추진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7\\_0002749286&cID=10201&pID=102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7_0002749286&cID=10201&pID=10200)

한국 선수 20명...제79회 US 여자오픈 출격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2710105241023>

차두리, 결혼한 상태에서 내연녀 상대 스토킹 고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7\\_0002749213&cID=10201&pID=102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7_0002749213&cID=10201&pID=10200)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